

인천시립극단 Incheon City Theater Company

프로필 작성

인천시립극단은 199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단된 공립극단으로서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인천 지역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인천 시민 모두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극장의 문턱을 낮추고, 저소득층 할인혜택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관객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가장 소외된 청소년 연극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연극 만들기'와 같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에 삶의 중심을 세우는 공립극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 2020년 공연실적

(단위 : 건, 회, 명)

구 분	계	정기공연(은)	기존공연(은)	초청공연	상설무대(은)
2020년	7/7	1/1	4/4	1/1	1/1
관람인원	4,766	2,180	975	175	1436

* 공연현황 총괄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계	7건 / 7회			4,766명
2020.3.16(월) 회관 홈페이지 온라인 상영	거대한 뿌리	<p>작 : 박근형 연출 : 박근형</p> <p>*출연진* 서좌백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송예은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조연출 : 이은준 무대디자인 : 심채선 조명디자인 : 정태민 영상디자인 : 정병목 음악감독 : 박민수 음향감독 : 이복행 분 장 : 장경숙 의상디자인 : 오수현 소품디자인 : 최혜진 무대감독 : 손지영 사진촬영 : 유재형 홍보디자인 : 장려진</p> <p>예술감독 : 강량원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행 정 : 이옥희 기 획 : 이돈형 비상임 : 조성신</p>	<p>3.15 부정선거에 맞서 시위를 하던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자 울분을 토하는 시인 김수영.</p> <p>그는 문학 동료들의 격렬한 문학 논쟁을 하며 이승만을 규탄한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4·19를 맞이하여 김수영 시인은 신세벽의 대한민국을 꿈꾸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p> <p>문득 자신이 살아온 격동의 세월을 되새기며 회한에 젖어 든다. 일제시대의 어린 시절과 거제도 포로수용서의 참혹한 경험을 겪고 현실과 정치를 직시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문학을 바라보는 김수영.</p> <p>그러나 4·19 이후 민주 정부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되기를 꿈꾸었으나 박정희의 쿠데타로 시대는 다시 겨울 공화국으로 전락한다. 김수영은 부정한 시대를 한탄하며 시를 무기 삼아 세상과 맞선다.</p> <p>그러던 어느 날... 그가 48세이던 1968년 6월 15일 통금을 앞두고 집으로 가던 길에 버스에 치여 머리를 다친다. 다음 날 아침 적십자병원에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숨을 거둔다. 그의 죽음 앞에, 그날 4·19 때 거리를 뒤덮었던 한 무리의 고교생들이 자유를 외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p>	378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20.3.16(월) 회관 홈페이지 온라인 상영</p>	<p>클레오파트라</p>	<p>각색 : 이홍이 연출 : 강량원</p> <p>*출연진* 서좌백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훈 이수정 김희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각색 : 이홍이 무대디자인 : 임일진 작곡 : 이민우 조명디자인 : 최보운 영상디자인 : 김성하 의상디자인 : 오수현 소품디자인 : 박현이 음향감독 : 김현산 안무 : 금배섭 분 장 : 이지연 무대감독 : 최성국 무대조감독 : 박수예 사진촬영 : 유재형 홍보디자인 : 장려진</p> <p>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행 정 : 이옥희 기 획 : 이돈형 비상임 : 조성신</p>	<p>“로마고 뭐고 확 통째로 강에 떠내려가 버리라지. 내 우주는 여기 있어. 나라? 그까짓 거 그냥 땅덩어리 아니야, 뭐 어찌라고. 인생이라는 건, 이거야, 이렇게 널 안을 수만 있으면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어.“</p> <p>로마는 언제나 이집트를 탐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권력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집트를 지켰다. 그때 로마의 패권을 놓고 안토니와 시저가 전쟁을 벌이고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미래를 위해 연인 안토니를 돕는다. 그러나 안토니 측은 계속 패하고 마침내 거의 괴멸되고 만다. 안토니는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로 피신해오는데 그때 클레오파트라는 무덤으로 위장한 요새에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안토니는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것으로 오해하고 자결하는데...</p> <p>인천시립극단의 <클레오파트라>는 모호한 공간을 배경으로 삼는다. 현재도 전쟁이 계속되는 팔레스타인의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느와르적인 분위기가 압도하는 깡패들의 공간이거나 미래의 디스토피아적 공간일 수도 있다. 어느 곳이든 폭력이 정의를 압도하는 공간이고 싸움이 사랑을 파괴하는 공간이다. 그곳에서 욕망과 명분을 위한 전쟁이 점차 모든 것을 잠식해나간다.</p>	<p>400</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9. 6. 14(금) 야외공연장	금요예술무대 “판타스틱스”	<p>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p> <p>*출연진* 서좌백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이수정 서창희 이규호</p> <p>*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이지연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판타스틱스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일곱이다. 이웃사촌간의 두 명의 엄마 그리고 이들의 자녀인 마트와 루이자 그리고 이 극의 진행자인 엘갈로, 극중극 인물로 헨리와 머티머가 등장한다.</p> <p>두 엄마들은 마트와 루이자를 결혼시키려고 계획을 꾸미고 이들이 일부러 원수지간인 척 행세를 하여 아들딸들의 가슴에 더욱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유도한다. 그런 와중에도 부모를 피해가며 이들의 만남은 계속된다.</p> <p>엄마들은 이들의 사랑에 불꽃을 피우기 위해 유괴전문가 엘갈로를 고용하여 마트가 보는 앞에서 루이자를 유괴하는 연극을 꾸미고 그 와중에 마트가 루이자를 구출하게끔 만든다.</p> <p>이를 기회로 두 집안은 화해를 하고 결혼을 유도하지만 부모들의 위선이 드러나고 연인들의 사이도 소원하게 된다.</p> <p>결국 마트와 루이자는 환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고통을 맛보게 되고 마트는 세상의 어려움을, 루이자는 기다림의 인내를 배우게 된다.</p> <p>마트가 세상에 나가서 온갖 고생 끝에 진실된 마음을 찾고 돌아오게 되자 루이자도 환상에서 깨어난 여인으로 탈바꿈하고 결국은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해피엔딩으로 막이 내린다.</p>	1,436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9. 7. 11(토) 경주 예술의 전당 원화홀</p>	<p>국공립극단 페스티벌 “판타스틱스”</p>	<p>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p> <p>*출연진* 서좌백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이수정 서창희 이규호</p> <p>*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이지연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판타스틱스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일곱이다. 이웃사촌간의 두 명의 엄마 그리고 이들의 자녀인 마트와 루이자 그리고 이 극의 진행자인 엘갈로, 극중극 인물로 헨리와 머티머가 등장한다.</p> <p>두 엄마들은 마트와 루이자를 결혼시키려고 계획을 꾸미고 이들이 일부러 원수지간인 척 행세를 하여 아들딸들의 가슴에 더욱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유도한다. 그런 와중에도 부모를 피해가며 이들의 만남은 계속된다. 엄마들은 이들의 사랑에 불꽃을 피우기 위해 유괴전문가 엘갈로를 고용하여 마트가 보는 앞에서 루이자를 유괴하는 연극을 꾸미고 그 와중에 마트가 루이자를 구출하게끔 만든다.</p> <p>이를 기회로 두 집안은 화해를 하고 결혼을 유도하지만 부모들의 위선이 드러나고 연인들의 사이도 소원하게 된다.</p> <p>결국 마트와 루이자는 환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고통을 맛보게 되고 마트는 세상의 어려움을, 루이자는 기다림의 인내를 배우게 된다.</p> <p>마트가 세상에 나가서 온갖 고생 끝에 진실된 마음을 찾고 돌아오게 되자 루이자도 환상에서 깨어난 여인으로 탈바꿈하고 결국은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해피엔딩으로 막이 내린다.</p>	<p>175</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20.9.29.(화) ~10.4(일) 회관 유튜브 극단 유튜브 온라인 상영</p>	<p>거대한 뿌리</p>	<p>작 : 박근형 연출 : 박근형</p> <p>*출연진* 서좌백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송예은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조연출 : 이은준 무대디자인 : 심채선 조명디자인 : 정태민 영상디자인 : 정병목 음악감독 : 박민수 음향감독 : 이복행 분 장 : 장경숙 의상디자인 : 오수현 소품디자인 : 최혜진 무대감독 : 손지영 사진촬영 : 유재형 홍보디자인 : 장려진</p> <p>예술감독 : 강량원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행 정 : 이옥희 기 획 : 이돈형 비상임 : 이유선</p>	<p>3.15 부정선거에 맞서 시위를 하던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자 울분을 토하는 시인 김수영.</p> <p>그는 문학 동료들의 격렬한 문학 논쟁을 하며 이승만을 규탄한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4·19를 맞이하여 김수영 시인은 신세벽의 대한민국을 꿈꾸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p> <p>문득 자신이 살아온 격동의 세월을 되새기며 회한에 젖어 든다. 일제시대의 어린 시절과 거제도 포로수용서의 참혹한 경험을 겪고 현실과 정치를 직시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문학을 바라보는 김수영.</p> <p>그러나 4·19 이후 민주 정부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되기를 꿈꾸었으나 박정희의 쿠데타로 시대는 다시 겨울 공화국으로 전락한다. 김수영은 부정한 시대를 한탄하며 시를 무기 삼아 세상과 맞선다.</p> <p>그러던 어느 날... 그가 48세이던 1968년 6월 15일 통금을 앞두고 집으로 가던 길에 버스에 치여 머리를 다친다. 다음 날 아침 적십자병원에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숨을 거둔다. 그의 죽음 앞에, 그날 4·19 때 거리를 뒤덮었던 한 무리의 고교생들이 자유를 외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p>	<p>55</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20.9.29.(화) ~10.4(일) 회관 유튜브 극단 유튜브 온라인 상영</p>	<p>클레오파트라</p>	<p>각색 : 이홍이 연출 : 강량원</p> <p>*출연진* 서좌백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훈 이수정 김희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각색 : 이홍이 무대디자인 : 임일진 작곡 : 이민우 조명디자인 : 최보운 영상디자인 : 김성하 의상디자인 : 오수현 소품디자인 : 박현이 음향감독 : 김현산 안무 : 금배섭 분 장 : 이지연 무대감독 : 최성국 무대조감독 : 박수예 사진촬영 : 유재형 홍보디자인 : 장려진</p> <p>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행 정 : 이옥희 기 획 : 이돈형 비상임 : 이유선</p>	<p>“로마고 뭐고 확 통째로 강에 떠내려가 버리라지. 내 우주는 여기 있어. 나라? 그까짓 거 그냥 땅덩어리 아니야, 뭐 어찌라고. 인생이라는 건, 이거야, 이렇게 널 안을 수만 있으면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어.“</p> <p>로마는 언제나 이집트를 탐냈 다. 클레오파트라라는 로마 권력 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 여 이집트를 지켰다. 그때 로 마의 패권을 놓고 안토니와 시 저가 전쟁을 벌이고 클레오파 트라라는 이집트의 미래를 위해 연인 안토니를 돕는다. 그러나 안토니 측은 계속 패하고 마침내 거의 괴멸되고 만다. 안토니는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로 피신해 오는데 그때 클레오파트라라는 무 덤으로 위장한 요새에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안토 니는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것으 로 오해하고 자결하는데...</p> <p>인천시립극단의 <클레오파트 라>는 모호한 공간을 배경으로 삼는다. 현재도 전쟁이 계속되 는 팔레스타인의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느와르적인 분위기 가 압도하는 깡패들의 공간이 거나 미래의 디스토피아적 공 간일 수도 있다. 어느 곳이든 폭력이 정의를 압도하는 공간이 고 싸움이 사랑을 파괴하는 공 간이다. 그곳에서 욕망과 명분을 위한 전쟁이 점차 모든 것을 잠 식해나간다.</p>	<p>142</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20.11.28.(토) ~11.29(일) 회관 유튜브 극단 유튜브 온라인 상영</p>	<p>제80회 정기공연 “해피빵집레시피”</p>	<p>원작 : 후쿠야마 케이코 각색 : 이홍이 연출 : 강량원</p> <p>*출연진* 서좌백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훈 이수정 김희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각색 : 이홍이 무대미술 : 임일진 작곡 : 움브레 편곡·믹싱 : 손희남 조명디자인 : 최보윤 의상디자인 : 오수현 분 장 : 이지연 소품디자인 : 윤미연 음향감독 : 김현산 무대감독 : 최성국 공연장 음향감독 : 이복행 홍보디자인 : 장려진 일러스트디자인 : 심동호 사진촬영 : 유재형 조연출 : 최태용</p> <p>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행 정 : 이옥희 기 획 : 이돈형 비상임 : 이유선</p>	<p>정년퇴직하자마자 아내를 병으로 잃어 삶의 의욕이 사라진 최영수. 그런 아버지를 걱정하는 딸 효진은 가끔 친정에 들러 영수의 상황을 살핀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의 아내가 생전에 남겨두었던 빵 레시피 한 장이 집안에서 발견되고, 효진의 성화에 못 이겨 영수는 빵 만들기에 도전한다. 하지만 빵 하나 만드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기에 효진은 엄마의 유언이라며 영수를 도와 빵을 만들 사람들을 불러들인다. 한때 노숙자 생활을 했던 사람들, 조현병에 시달리는 사람, 약물 중독으로 감옥에 다녀온 사람... ‘정말 아내가 노숙자들을 위해 빵을 만들었다고? 정말로 아내는 내가 이런 일을 하길 원했을까?’ 내키지 않지만, 영수는 그들과 함께 빵을 만들기로 한다. 그리고 이 소식은 어느 틈에 소문이 되어 동네에 퍼지게 된다...</p>	<p>2,180</p>

＊ 정기공연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1건 / 1회			2,180명
2020.11.28.(토) ~11.29(일) 회관 유튜브 극단 유튜브 온라인 상영	제80회 정기공연 “해피빵집레시피”	원작 : 후쿠야마 케이코 각색 : 이홍이 연출 : 강량원 *출연진* 서좌백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훈 이수정 김희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 *스텝* 각색 : 이홍이 무대미술 : 임일진 작곡 : 움브레 편곡·믹싱 : 손희남 조명디자이너 : 최보윤 의상디자이너 : 오수현 분 장 : 이지연 소품디자이너 : 윤미연 음향감독 : 김현산 무대감독 : 최성국 공연장 음향감독 : 이복행 홍보디자이너 : 장려진 일러스트디자이너 : 심동호 사진촬영 : 유재형 조연출 : 최태용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행정 : 이옥희 기획 : 이돈형 비상임 : 이유선	정년퇴직하자마자 아내를 병으로 잃어 삶의 의욕이 사라진 최영수. 그런 아버지를 걱정하는 딸 효진은 가끔 친정에 들러 영수의 상황을 살핀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의 아내가 생전에 남겨두었던 빵 레시피 한 장이 집안에서 발견되고, 효진의 성화에 못 이겨 영수는 빵만들기에 도전한다. 하지만 빵 하나 만드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기에 효진은 엄마의 유언이라며 영수를 도와 빵을 만들 사람들을 불러들인다. 한때 노숙자 생활을 했던 사람들, 조현병에 시달리는 사람, 약물 중독으로 감옥에 다녀온 사람... ‘정말 아내가 노숙자들을 위해 빵을 만들었다고? 정말로 아내가 내가 이런 일을 하길 원했을까?’ 내키지 않지만, 영수는 그들과 함께 빵을 만들기로 한다. 그리고 이 소식은 어느 틈에 소문이 되어 동네에 퍼지게 된다...	2,180

※ 기획공연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2건 / 2회			1,611명
2019. 6. 14(금) 야외공연장	금요예술무대 “판타스틱스”	<p>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p> <p>*출연진* 서좌백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이수정 서창희 이규호</p> <p>*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이지연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판타스틱스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일곱이다. 이웃사촌간의 두 명의 엄마 그리고 이들의 자녀인 마트와 루이자 그리고 이 극의 진행자인 엘갈로, 극중극 인물로 헨리와 머티머가 등장한다.</p> <p>두 엄마들은 마트와 루이자를 결혼시키려고 계획을 꾸미고 이들이 일부러 원수지간인 척 행세를 하여 아들딸들의 가슴에 더욱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유도한다. 그런 와중에도 부모를 피해가며 이들의 만남은 계속된다. 엄마들은 이들의 사랑에 불꽃을 피우기 위해 유괴전문가 엘갈로를 고용하여 마트가 보는 앞에서 루이자를 유괴하는 연극을 꾸미고 그 와중에 마트가 루이자를 구출하게끔 만든다.</p> <p>이를 기회로 두 집안은 화해를 하고 결혼을 유도하지만 부모들의 위선이 드러나고 연인들의 사이도 소원하게 된다.</p> <p>결국 마트와 루이자는 환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고통을 맛보게 되고 마트는 세상의 어려움을, 루이자는 기다림의 인내를 배우게 된다.</p> <p>마트가 세상에 나가서 온갖 고생 끝에 진실된 마음을 찾고 돌아오게 되자 루이자도 환상에서 깨어난 여인으로 탈바꿈하고 결국은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헤피엔딩으로 막이 내린다.</p>	1,436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9. 7. 11(토) 경주 예술의 전당 원화홀</p>	<p>국공립극단 페스티벌 “판타스틱스”</p>	<p>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p> <p>*출연진* 서좌백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이수정 서창희 이규호</p> <p>*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이지연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판타스틱스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일곱이다. 이웃사촌간의 두 명의 엄마 그리고 이들의 자녀인 마트와 루이자 그리고 이 극의 진행자인 엘갈로, 극중극 인물로 헨리와 머티머가 등장한다.</p> <p>두 엄마들은 마트와 루이자를 결혼시키려고 계획을 꾸미고 이들이 일부러 원수지간인 척 행세를 하여 아들딸들의 가슴에 더욱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유도한다. 그런 와중에도 부모를 피해가며 이들의 만남은 계속된다. 엄마들은 이들의 사랑에 불꽃을 피우기 위해 유괴전문가 엘갈로를 고용하여 마트가 보는 앞에서 루이자를 유괴하는 연극을 꾸미고 그 와중에 마트가 루이자를 구출하게끔 만든다.</p> <p>이를 기회로 두 집안은 화해를 하고 결혼을 유도하지만 부모들의 위선이 드러나고 연인들의 사이도 소원하게 된다.</p> <p>결국 마트와 루이자는 환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고통을 맛보게 되고 마트는 세상의 어려움을, 루이자는 기다림의 인내를 배우게 된다.</p> <p>마트가 세상에 나가서 온갖 고생 끝에 진실된 마음을 찾고 돌아오게 되자 루이자도 환상에서 깨어난 여인으로 탈바꿈하고 결국은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해피엔딩으로 막이 내린다.</p>	<p>175</p>

* 기타공연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4건 / 4회			975명
2020.3.16(월) 회관 홈페이지 온라인 상영	거대한 뿌리	<p>작 : 박근형 연출 : 박근형</p> <p>*출연진* 서좌백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송예은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조연출 : 이은준 무대디자인 : 심채선 조명디자인 : 정태민 영상디자인 : 정병목 음악감독 : 박민수 음향감독 : 이복행 분장 : 장경숙 의상디자인 : 오수현 소품디자인 : 최혜진 무대감독 : 손지영 사진촬영 : 유재형 홍보디자인 : 장려진</p> <p>예술감독 : 강량원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행정 : 이옥희 기획 : 이돈형 비상임 : 조성신</p>	<p>3.15 부정선거에 맞서 시위를 하던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자 울분을 토하는 시인 김수영.</p> <p>그는 문학 동료들의 격렬한 문학 논쟁을 하며 이승만을 규탄한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4·19를 맞이하여 김수영 시인은 신세벽의 대한민국을 꿈꾸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p> <p>문득 자신이 살아온 격동의 세월을 되새기며 회한에 젖어 든다. 일제시대의 어린 시절과 거제도 포로수용서의 참혹한 경험을 겪고 현실과 정치를 직시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문학을 바라보는 김수영.</p> <p>그러나 4·19 이후 민주 정부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되기를 꿈꾸었으나 박정희의 쿠데타로 시대는 다시 겨울 공화국으로 전락한다. 김수영은 부정한 시대를 한탄하며 시를 무기 삼아 세상과 맞선다.</p> <p>그러던 어느 날... 그가 48세이던 1968년 6월 15일 통금을 앞두고 집으로 가던 길에 버스에 치여 머리를 다친다. 다음 날 아침 적십자병원에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숨을 거둔다. 그의 죽음 앞에, 그날 4·19 때 거리를 뒤덮었던 한 무리의 고교생들이 자유를 외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p>	378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20.3.16(월) 회관 홈페이지 온라인 상영</p>	<p>클레오파트라</p>	<p>각색 : 이홍이 연출 : 강량원</p> <p>*출연진* 서좌백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훈 이수정 김희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각색 : 이홍이 무대디자인 : 임일진 작곡 : 이민우 조명디자인 : 최보운 영상디자인 : 김성하 의상디자인 : 오수현 소품디자인 : 박현이 음향감독 : 김현산 안무 : 금배섭 분 장 : 이지연 무대감독 : 최성국 무대조감독 : 박수예 사진촬영 : 유재형 홍보디자인 : 장려진</p> <p>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행 정 : 이옥희 기 획 : 이돈형 비상임 : 조성신</p>	<p>“로마고 뭐고 확 통째로 강에 떠내려가 버리라지. 내 우주는 여기 있어. 나라? 그까짓 거 그냥 땅덩어리 아니야, 뭐 어찌라고. 인생이라는 건, 이거야, 이렇게 널 안을 수만 있으면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어.“</p> <p>로마는 언제나 이집트를 탐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로마 권력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집트를 지켰다. 그때 로마의 패권을 놓고 안토니와 시저가 전쟁을 벌이고 클레오파트라라는 이집트의 미래를 위해 연인 안토니를 돕는다. 그러나 안토니 측은 계속 패하고 마침내 거의 괴멸되고 만다. 안토니는 친신만고 끝에 이집트로 피신해오는데 그때 클레오파트라라는 무덤으로 위장한 요새에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안토니는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것으로 오해하고 자결하는데...</p> <p>인천시립극단의 <클레오파트라>는 모호한 공간을 배경으로 삼는다. 현재도 전쟁이 계속되는 팔레스타인의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느와르적인 분위기가 압도하는 깡패들의 공간이거나 미래의 디스토피아적 공간일 수도 있다. 어느 곳이든 폭력이 정의를 압도하는 공간이고 싸움이 사랑을 파괴하는 공간이다. 그곳에서 욕망과 명분을 위한 전쟁이 점차 모든 것을 잠식해나간다.</p>	<p>400</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20.9.29.(화) ~10.4(일) 회관 유튜브 극단 유튜브 온라인 상영</p>	<p>거대한 뿌리</p>	<p>작 : 박근형 연출 : 박근형</p> <p>*출연진* 서좌백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송예은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조연출 : 이은준 무대디자인 : 심채선 조명디자인 : 정태민 영상디자인 : 정병목 음악감독 : 박민수 음향감독 : 이복행 분 장 : 장경숙 의상디자인 : 오수현 소품디자인 : 최혜진 무대감독 : 손지영 사진촬영 : 유재형 홍보디자인 : 장려진</p> <p>예술감독 : 강량원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행 정 : 이옥희 기 획 : 이돈형 비상임 : 이유선</p>	<p>3.15 부정선거에 맞서 시위를 하던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자 울분을 토하는 시인 김수영.</p> <p>그는 문학 동료들의 격렬한 문학 논쟁을 하며 이승만을 규탄한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4·19를 맞이하여 김수영 시인은 신세벽의 대한민국을 꿈꾸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p> <p>문득 자신이 살아온 격동의 세월을 되새기며 회한에 젖어 든다. 일제시대의 어린 시절과 거제도 포로수용서의 참혹한 경험을 겪고 현실과 정치를 직시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문학을 바라보는 김수영.</p> <p>그러나 4·19 이후 민주 정부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되기를 꿈꾸었으나 박정희의 쿠데타로 시대는 다시 겨울 공화국으로 전락한다. 김수영은 부정한 시대를 한탄하며 시를 무기 삼아 세상과 맞선다.</p> <p>그러던 어느 날... 그가 48세이던 1968년 6월 15일 통금을 앞두고 집으로 가던 길에 버스에 치여 머리를 다친다. 다음 날 아침 적십자병원에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숨을 거둔다. 그의 죽음 앞에, 그날 4·19 때 거리를 뒤덮었던 한 무리의 고교생들이 자유를 외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p>	<p>55</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20.9.29.(화) ~10.4(일) 회관 유튜브 극단 유튜브 온라인 상영</p>	<p>클레오파트라</p>	<p>각색 : 이홍이 연출 : 강량원</p> <p>*출연진* 서좌백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훈 이수정 김희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각색 : 이홍이 무대디자인 : 임일진 작곡 : 이민우 조명디자인 : 최보운 영상디자인 : 김성하 의상디자인 : 오수현 소품디자인 : 박현이 음향감독 : 김현산 안무 : 금배섭 분 장 : 이지연 무대감독 : 최성국 무대조감독 : 박수예 사진촬영 : 유재형 홍보디자인 : 장려진</p> <p>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행 정 : 이옥희 기 획 : 이돈형 비상임 : 이유선</p>	<p>“로마고 뭐고 확 통째로 강에 떠내려가 버리라지. 내 우주는 여기 있어. 나라? 그까짓 거 그냥 땅덩어리 아니야, 뭐 어찌라고. 인생이라는 건, 이거야, 이렇게 널 안을 수만 있으면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어.“</p> <p>로마는 언제나 이집트를 탐냈 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권력 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 여 이집트를 지켰다. 그때 로 마의 패권을 놓고 안토니와 시 저가 전쟁을 벌이고 클레오파 트라는 이집트의 미래를 위해 연인 안토니를 돕는다. 그러나 안토니 측은 계속 패하고 마침내 거의 괴멸되고 만다. 안토니는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로 피신해 오는데 그때 클레오파트라는 무 덤으로 위장한 요새에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안토 니는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것으 로 오해하고 자결하는데...</p> <p>인천시립극단의 <클레오파트 라>는 모호한 공간을 배경으로 삼는다. 현재도 전쟁이 계속되 는 팔레스타인의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느와르적인 분위기 가 압도하는 깡패들의 공간이 거나 미래의 디스토피아적 공 간일 수도 있다. 어느 곳이든 폭력이 정의를 압도하는 공간이 고 싸움이 사랑을 파괴하는 공 간이다. 그곳에서 욕망과 명분을 위한 전쟁이 점차 모든 것을 잠 식해나간다.</p>	<p>142</p>

시립극단 단원명단

예술감독 : 강량원

훈 련 장 : 이완희

단 무 장 : 김화산

조 연 출 : 손경희

사 무 : 이옥희, 이돈형

수 석 : 서좌백, 이범우, 강주희

제1차석 : 차광영, 김세경, 강성숙

제2차석 : 심영민, 정순미, 김태훈

상임단원 : 김현준, 최진영, 김문정, 이수정, 송예은,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

※ 2020년 12월 31일 기준